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레고켐바이오(141080)

## 기타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국윤민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9.24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레고켐바이오(141080)

신약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항체의약품 제조 기업

## 기업정보(2021/11/22 기준)

대표자	김용주
설립일자	2006년 05월 02일
상장일자	2013년 05월 1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주요제품	항체의약품 및 합성신약 후보물질

## 시세정보(2021/11/22 기준)

현재가	50,3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2,190억 원
발행주식수	24,234,918주
52주 최고가	74,900원
52주 최저가	41,150원
외국인지분율	6.54%
주요주주	
김용주 외 8인	11.96%
조금수 외 1인	5.57%

## ■ 신약연구개발부문 및 의약사업부문 영위 중

레고켐바이오(이하 동사)는 2006년 5월 설립 후, 2013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항체-약물 복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및 합성신약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항체의약품 제조 기업이다. 동사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ADC 품목을 개발 중이며,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동사는 수도권 소재 5개 외과수술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납품하며 의약사업부문을 영위 중이며, 관계기업인 (주)바스칸바이오제약과의 협업으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 도입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 합성신약 및 ADC 원천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동사는 ADC 원천기술인 ConjuALL, 약물 유사성을 가진 구조(Scaffold)를 활용한 신약 발굴 기술인 LegoChemistry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ADC 제품 파이프라인과 항생제, 항섬유화제, 항응혈제 등의 다수의 신약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ConjuALL 기술은 혈중 안정적인 링커(Linker)와 고유결합 방법을 활용하여 약효와 안전성을 개선한 기술로써, 순도 높은 ADC 단일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 ■ 기술이전 파트너사들의 신약 임상시험 결과 기대

동사는 자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며 매출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를 발표 중이다. 2021년 반기보고서 기준, 총 9건(ADC 분야 6건, 합성신약 분야 3건)의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 규모도 약 2조 5천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파트너사들은 현재 플랫폼 기술 및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임상 결과 및 IND 신청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252.4	9.6	-139.4	-60.9	-249.0	-108.8	-31.4	-24.1	15.2	-1,165	4,403	-	6.4
2019	575.0	151.3	84.2	14.6	124.8	21.7	11.4	9.5	22.1	520	4,736	50.9	5.6
2020	493.9	-14.1	-297.6	-60.3	-69.9	-14.2	-6.2	-5.0	21.2	-290	4,651	-	15.1

## 기업경쟁력

### 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 ADC 링커 플랫폼 원천기술인 ConjuALL 확보
  - 항체 구조 변형 최소화 / 순도 높은 단일물질 생성
  - 혈중 안정적인 링커 / 암세포 특이적 약물 전달
- 특정 구조의 핵심중간체를 활용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인 LegoChemistry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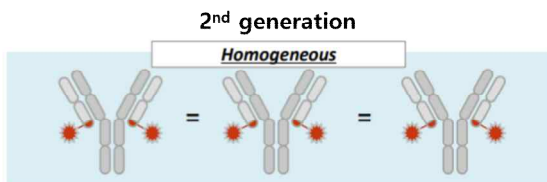
### 다양한 ADC 및 합성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 ADC 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 확보
  - ADC 플랫폼 / ADC 제품 파이프라인 확보
- 저분자 화합물 파이프라인 확보
  - 항생제 / 항섬유화제 / 항응혈제 파이프라인 확보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ConjuALL 기술 기반의 ADC 파이프라인

#### ■ 동사의 ConjuALL 기술 기반 ADC 모식도



#### ■ 동사의 ADC 제품 파이프라인 현황

프로젝트	적응증	개발단계	라이선스
LCB14	BC, GC 등	임상 1상	복성제약
LCB73	ALL, NHL 등	전임상	Iksuda
LCB71	CLL, MCL 등	전임상	CStone
LCB67	MDS, AML 등	전임상	Pyxis

### 주요 매출실적

(단위: 억 원)

사업부문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신약개발부문	317.9	310.9	1.5
의약사업부문	257.1	183.0	97.3
합계	575.0	493.9	98.8

## 시장경쟁력

### 세계 ADC 시장 규모

연도	시장규모	이슈
2019년	3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li> <li>• 전 세계적으로 ADC 연구개발 확대</li> </ul>
2025년(E)	180억 달러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 2021년 말 임상개발을 담당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으로 자체 임상개발 예정
- 2021년 10월 중국 안텐진과 ADC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옵션계약

### ADC 후보물질 논문게재 및 수상으로 우수성 입증

- 동사의 ADC 치료제 후보물질 LCB14에 대한 효능 및 작용기전을 밝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
- World ADC Awards 2021에서 Best ADC Platform Technology 부문 최고상인 Winner에 선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음.
- 동사의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록, 환경 경영 조직 설치, 환경 성과평가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으나,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유관활동을 계획 중임.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인사옥 이전으로 임직원들에게 쾌적한 연구 및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두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동사는 임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제도, 경조사비, 상해보험, 사내 동호회 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한 내부 회계 관리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로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현황

### 신약개발 원천기술 기반의 ADC, 합성신약 제조 및 다수 파이프라인 보유

동사는 원천기술인 ConjuALL과 LegoChemistry를 기반으로 ADC 항체의약품과 저분자 합성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동사는 원천기술에 대하여 4년 연속 World ADC Awards 수상 이력과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통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 기업 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2006년 5월 합성신약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현재, ADC 링커 플랫폼 원천기술인 ConjuALL과 특정한 구조를 갖는 핵심중간체를 활용하여 신약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LegoChemistry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ADC 및 합성신약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약연구개발부문과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전문의약품 등으로 매출이 구성된 의약사업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신약개발부문의 경우, 동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과 더불어 ADC 후보물질 및 항생제, 항섬유화제, 항응혈제 등의 합성신약 물질에 대한 기술이전이 있으며, 동사의 주력 매출처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동사는 수도권 소재 외과수술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손실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성 사업만 진행하며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창립자인 김용주 대표이사로 9.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주요주주는 조공수(4.66%)와 박세진(수석부사장/CFO, 1.57%) 등이 있다.

[표 1] 동사의 최근 3년간 및 2021년 상반기 주요 연혁

연도	월	내용
2021년	6월	Iksuda와 ADC 원천기술 확장 계약 체결
	12월	일본 유수의 제약회사와 ADC 리서치 라이선스 계약 체결
	12월	Pyxis와 Anti-DLK1 ADC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0년	10월	CStone과 Anti-ROR1 ADC 기술이전 계약 체결
	10월	'World ADC Awards 2020'에서 3년 연속 'Best ADC Platform Technology' 수상
	5월	Iksuda와 Anti-CD19 ADC 기술이전 계약 체결
	4월	Iksuda와 ADC 원천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9년	10월	'World ADC Awards 2019'에서 2년 연속 'Best ADC Platform Technology' 수상
	6월	고유 ADC 플랫폼 기술 ConjuALL 미국 특허 등록
	3월	Takeda와 ADC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년	11월	'World ADC Awards 2018'에서 'Best ADC Platform Technology' 수상
	1월	LCB02-0133 중국판권 Lee's Pharm 기술이전
	1월	Delpazolid(LCB01-0371) 미국 FDA 신속심사(Fast Track)선정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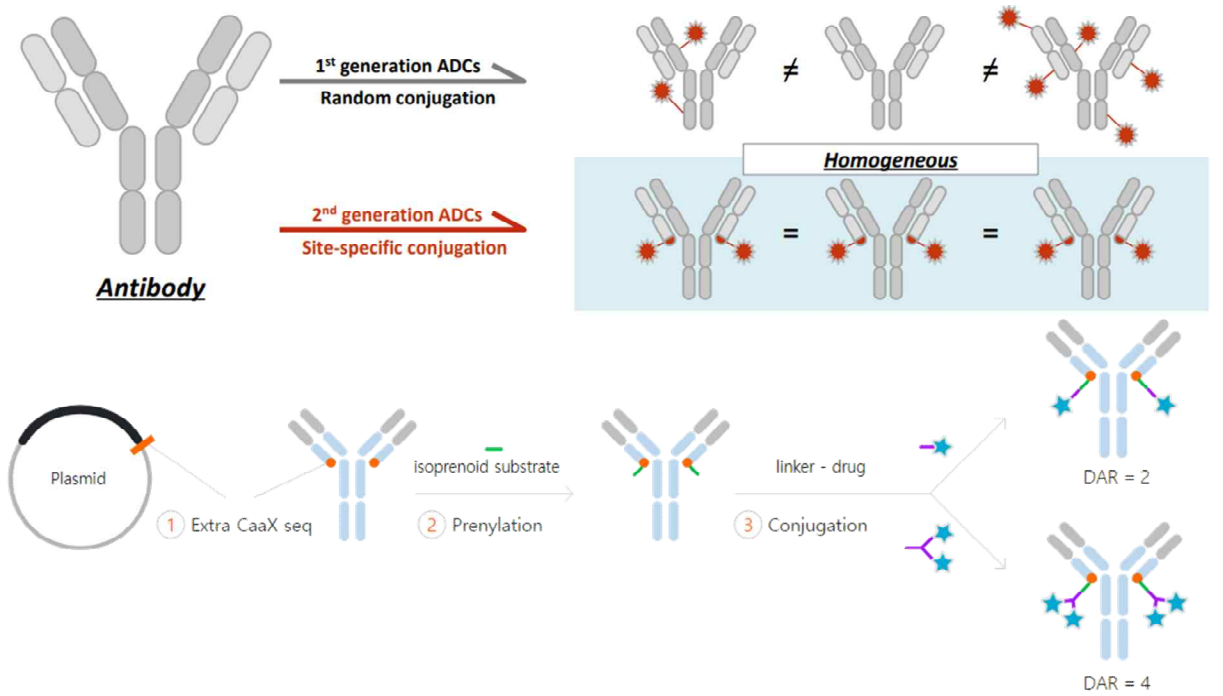
■ 신약개발 핵심기술: ConjuALL 및 LegoChemistry

동사의 주력 신약 플랫폼인 ADC와 합성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기술로 약물의 효율적인 전달을 유도하며, 혈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ADC 링커 플랫폼인 ConjuALL을 확보하였다. 또한, 약물 유사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구조를 가진 핵심중간체를 활용하여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고유구조 접근방식인 LegoChemistry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DC는 항체와 약물을 링커로 연결한 의약품으로써, 기존 항체의 항원에 대한 높은 결합 친화력과 특이성을 기반으로 항체 단독의 제한적인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자 항체에 세포독성(Cytotoxicity) 약물을 실어 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ADC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ADC용 항체 변형에 따른 고유 물성 손실', '결합 방식에 있어 다수의 불순물 생성', '혈중 링커 분리에 따른 약효 및 안전성 감소', '특신의 높은 항암효과 필요'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동사는 ConjuALL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인 ConjuALL은 기존 ADC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Conjugation, Linker, Payload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대 ADC 대비 항체 구조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단일물질 결합 방식을 사용하여 순도 높은 ADC를 생성한다. 또한, 신규 MOA (Mode of Action) 기반의 특신을 혈중 안정적인 링커를 사용하여 결합하여 암세포까지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ConjuALL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링커 기술은 항체에 약물 특정 접합부를 확보하였으며, 높은 혈중 안정성과 암세포 내에서만 특신을 방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한 특신은 혈중 및 정상세포에서는 독소가 비활성화되어 낮은 독성을 나타내지만, 암세포 내에서는 활성화되어 특이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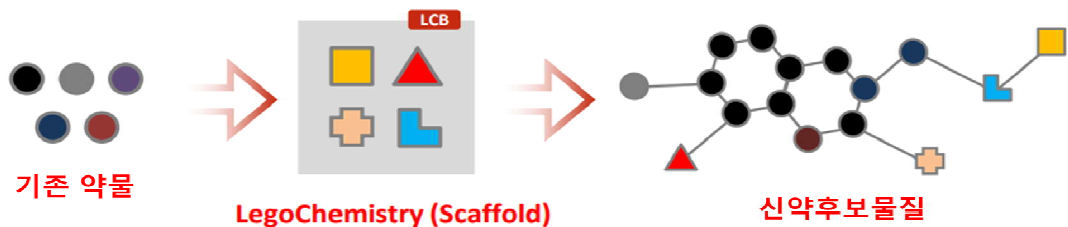
[그림 1] 동사의 ConjuALL 기술개요



\*출처: IR자료(2021.02)

동사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LegoChemistry 기술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기존 약물의 골격에 약물 유사성을 가진 핵심중간체를 부여하여 신약을 합성할 수 있어, 합성 공정 단계를 단축시킴으로써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현재 20여 종의 고유 핵심중간체를 보유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항생제, 항섬유화제, 항응혈제 등의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합성신약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ADC 플랫폼 기술 또한 LegoChemistry 기술의 핵심중간체를 활용한 결과들이다. 동사는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8년부터 World ADC Awards에서 4년 연속 'Best ADC Platform Technology'를 수상하여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LegoChemistry 기술개요



\*출처: 동사 IR자료(2021.02), NICE디앤비 재구성

## ■ 다양한 ADC 및 합성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동사는 신약개발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ADC와 저분자 화합물 합성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을 통해 기존 항암제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파이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동사의 AD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Herceptin-ADC 후보물질(LCB14, HER2-MMAF)을 중국 복성제약(Fosun Pharma)에 기술이전하여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며, 2021년 임상 1a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동사의 ADC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임상 데이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결과가 우수할 경우 동사의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은 더욱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동사는 2019년 ADC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인 Takeda에 ADC 플랫폼(LCB69)의 원천기술을 기술이전 하였으며, Takeda는 동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이후,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은 가속화되어 2020년 영국의 제약사인 Iksuda Therapeutics에 ADC 플랫폼(LCB91) 및 ADC 신약후보물질(LCB73)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stone 및 Pyxis에 각각 ROR1과 DLK1에 대한 ADC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을 체결하였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에는 ADC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각각 일본 유수의 제약회사와 안텐진(Antengene Biologics Limited)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ADC 후보물질을 발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3] 동사의 ADC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적용증/타겟	Discovery	preclinical	Phase 1	Phase 2	Antibody Provider	License Status	Licensee
ADC Platform Licensing	LCB69	Solid, Heme						Takeda	Takeda (ww)	Takeda
	LCB85	Solid, Heme						IKSUDA THERAPEUTICS	iksuda (ww)	IKSUDA THERAPEUTICS
	LCB91	Solid, Heme						UNDISCLOSED	MTA	-
	LCB06A	Solid, Heme						UNDISCLOSED	MTA (including Option)	-
ADC Products Licensing	LCB14 HER2-MMAF	BC, GC, OC, UC				Ph 3 in 2023		Herceptin Biosimilar	Fosun (China)	FOSUNPHARMA 复星医药
	LCB73 CD19-pPBD	ALL, NHL, CLL, DLBCL				IND 4Q 2021		Novimmune	iksuda (ww)	IKSUDA THERAPEUTICS
	LCB71 ROR1-pPBD	CLL, MCL, ALL, TNBC, NSCLC, Solid				IND 4Q 2021		ablbio	CStone (ww)	百石药业 CENTRAL PHARM
	LCB67 DLK1-MMAE	SCLC, HCC, NB, RD, MDS, AML				IND 1Q 2022		YBIOLOGICS	Pyxis (ww)	PYXIS ONCOLOGY
	LCB84	Solid, Heme						DIATHEVA	LCB (ww)	-
	LCB02A	Solid						HARBOUR BIOMED	LCB (ww)	-
	LCB04A	Solid, Heme						ImmuneOncia	LCB (ww)	-
	LCB97	Solid, Heme						UNDISCLOSED	LCB (ww)	-
	LCB87	Solid, Heme						UNDISCLOSED	LCB (ww)	-
	LCB05A	Solid, Heme						UNDISCLOSED	LCB (ww)	-

\*출처: 동사 IR자료(2021.02)

합성신약의 경우, 항생제, 항섬유화제, 항응혈제 등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ADC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제약사들에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동사의 그람양성균 항생제인 Delpazolid는 국내 임상 2a상이 진행 중이며, 2016년 중국 Haihe Bio에 기술이전 하여 중국 임상 1상을 완료하였다. 2019년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동사의 항섬유화제인 LCB17-0877은 국내 브릿지바이오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미국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항응혈제인 LCB02-0133은 GC녹십자와의 2009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미국 임상 1상 완료 후 현재 임상 2a상 진입 준비 중이며, 2018년 중국 Lee's Pharm에 중국판권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현재 임상 2상 단계 글로벌 제약사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림 4] 동사의 저분자 합성신약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적용증	Discovery	preclinical	Phase 1	Phase 2	Phase 3	Partner	비고	
Anti-biotics	Delpazolid (Gram +)	- DS-TB - MDR-TB - MRSA/ VRE		전임상(USA) / ph 1, ph 2a(Korea) DS-TB : 임상 2a상 진행중(남아공)			NDA 2024				- Orphan Drug - QIDP - Fast Track
				China				海和生物 Haihe Biopharma	- L/O for China ('16.12)		
Anti-fibrotic	LCB17-0877 (ATX Inhibitor) LCB17A (Next-Gen ATXI)	IPF, fibrotic diseases NASH, Oncology		USA					bridgebio Pharmaceuticals		- L/O for global (Profit Sharing)
									- Improved efficacy and safety		
Anti-coagulant	LCB02-0133 (Nokxaban, FXa Inhibitor)	항응혈제		USA					GC 녹십자		- L/O for global (Profit Sharing)
				China				LEE'S PHARM 利世大藥	- Sub L/O for China ('18.01)		
Anti-Virus	LCB99	COVID-19						CCEUI		- In-licensed	
Anti-cancer /Antibiotics		면역항암제 / 신규 항생제								- I-O Targeted - Combi with ADC - Payloads for A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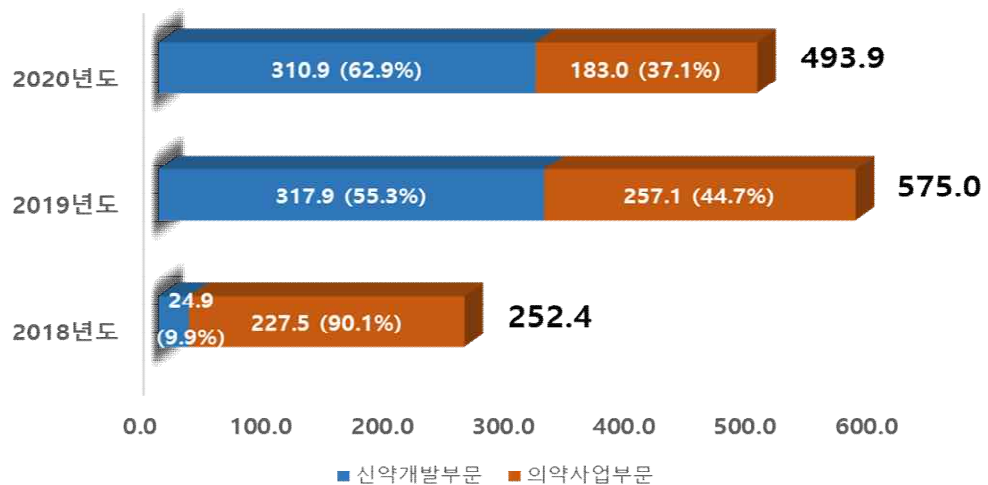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02)

## ■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전략 확보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의하면,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252.4억 원, 2019년 575.0억 원으로 127.8%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하였다. 이는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인 의약사업부문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일부 손실사업 정리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전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신약개발부문에서는 ADC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으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액을 나타냈다.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신약연구개발부문에서 기술이전과 공동연구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였지만, 2021년 10월 중국 안젠진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옵션 계약 체결을 통하여 265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여 2021년 총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 ■ 국내외 항체의약품 시장 및 ADC 시장 동향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핵심기술 기반 다양한 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ADC 플랫폼 기술 및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바, 상위 분야인 항체의약품 시장과 ADC 시장을 확인하여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가 속하는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제약업은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 집약적 분야로, 지식재산권 및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신흥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세계 제약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다. 또한, 선진국 중심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에 대한 특수약품 약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제약시장 중에서 백신, 유전자 칩, 재조합 단백질, 항체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합성의약품 대비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이 명확하여 치료 효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기에 합성의약품에 비해 임상 실패확률이 낮고 부작용 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19년 53%에서 2026년 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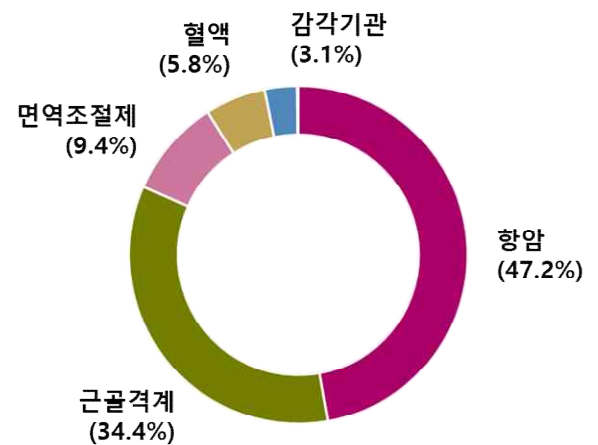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Evaluate Pharm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66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였는데, 이 중 항체의약품은 전체 시장의 51.1%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1,359.3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였다. 세계 항체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9.5%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2,343.1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적응증별로 항암치료제가 47.2%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골격계(34.4%), 면역조절제(9.4%)가 뒤를 이었다.

**[그림 6] 세계 항체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Evaluate Pharma(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7] 치료 영역별 항체의약품 분류**  
(단위: %)



\*출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2020),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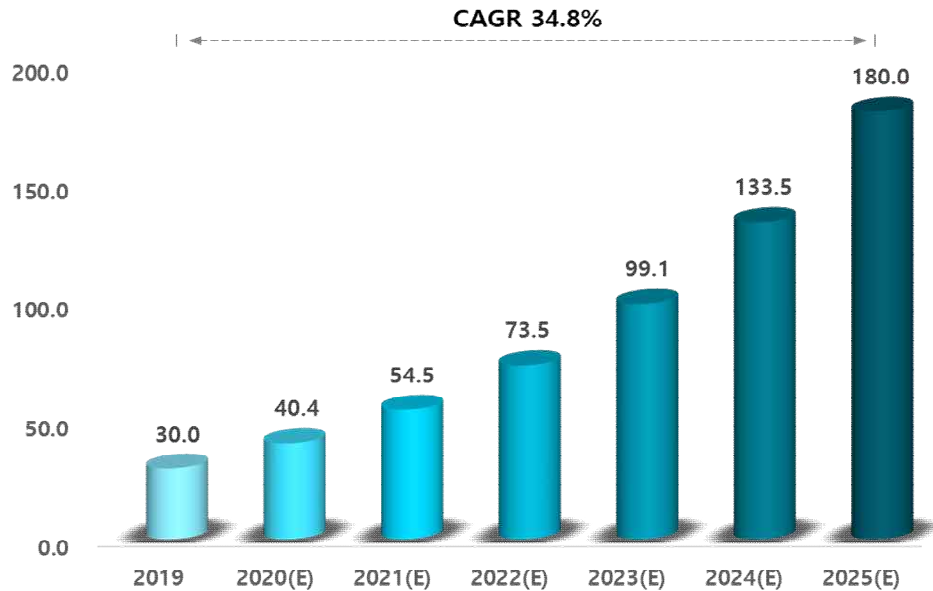
2019년 기준, 항체의약품 주요 제품 현황을 살펴보면, AbbVie사의 Humira(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등), Merck사의 Keytruda(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 Bristol Myers Squibb사의 Opdivo(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이 매출의 상위 3개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미국이 전체 매출 중 71.7%를 차지하여 제일 큰 시장을 형성하였고, 다음으로 유럽 18.9%, 일본 6.0%, 중국 3.5%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DC 기술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별하는 항체에 항암 치료용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치료 기술이다. ADC 기술은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을 항체에 붙여 선택적으로 약물을 방출해 항암효과는 높이고 기존 화학요법에 대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신약개발 기술로 꼽힌다. ADC 파이프라인은 희귀의약품이나 혁신신약, 패스트트랙으로 대부분 지정돼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곳곳에서는 유방암, 림프종, 비소세포폐암 등을 치료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Roche사의 유방암 치료용 ADC 신약 ‘케싸일라’는 지난 2019년 2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글로벌 ADC 의약품은 현재 12개 의약품만 승인을 받았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업인 Cortellis에 따르면, 세계 ADC 시장 규모는 2019년 30억 달러의 규모에서 연평균 34.8%로 급격히 성장하여 2025년에는 18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기준 글로벌 제약사 Gilead Science사가 지난해 ADC 기술을 보유한 Immunomedics를 2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ADC 기술이전이 급증하였다.

키트루다 개발사인 Merck사도 Seattle Genetics사와 ADC 기반 유방암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해 약 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AstraZeneca와 Daiichi Sankyo도 ADC에 대해 6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을 맺었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ADC 원천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동사의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8] 세계 ADC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Coretelli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 국내 ADC 항체의약품 제조 주요기업 현황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ADC 기술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ADC 항체의약품 제조업체로는 동사를 포함하여 (주)셀트리온, (주)알테오젠 등이 있으며, 3개 업체에 대하여 202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를 비교하였다. 2020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493.9억 원, (주)셀트리온이 1조 6,898억 원, (주)알테오젠이 262.1억 원으로 (주)셀트리온의 매출액이 가장 큰 수준이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0.3%, (주)셀트리온이 41.6%, (주)알테오젠이 21.6%로 나타났고, 매출액순이익률은 동사가 -14.2%, (주)셀트리온이 30.1%, (주)알테오젠이 15.5%를 기록하며, (주)셀트리온의 수익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20년 기준 국내 ADC 항체의약품 제조업체 비교 (단위: 억 원)

회사명	사업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레고켐바이오	ADC 항체의약품, 합성신약 등	493.9	-297.6	-69.9	-60.3%
(주)셀트리온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	16,897.9	7,033.0	5,078.0	41.6%
(주)알테오젠	보툴리눔독신 및 필러 제조 등	262.1	56.5	40.6	21.6%

\*출처: 각 기업 사업보고서(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9]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환경(E) 부문에서 동사는 신약연구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사의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록, 환경 경영 조직 설치, 환경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으나,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바탕으로 유관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의 활동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해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취급하는 실험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1년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10월 대덕연구단지로 신사옥 이전을 완료하였다. 동사의 신사옥은 이전 사옥과 비교해 3배가량 넓어 쾌적한 연구 및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건물 내 탕비실, 여자 휴게실,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구내식당이 마련되어 있어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동사는 회사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대학교까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주며, 가족을 포함하여 연 1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각종 경조사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사내 동호회 지원제도 등 임직원들의 행복한 삶 역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국내외 학회참석 지원,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비를 전체 지원하고,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학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수직원, 장기근속자, 핵심인재, 성과보상을 위한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두고,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두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0] 동사 인사옥의 직원편의시설



\*출처: 언론사 보도자료

동사는 기부금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동사의 매출액은 175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기부금은 59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비록 매출 대비 0.01%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기부금을 조금이라는데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동사의 2021년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 남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3.6년,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3.1년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동업종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53%로 산업 평균인 80%을 하회하며, 동사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86%로 산업 평균인 96%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52%로 동사가 속한, 의약품 산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인 29.12%(2020년도 산업별 여성 고용비율, 고용노동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 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50	3	53	3.6	6.4	44	50
여	51	7	58	3.1	6.2	23.5	40
합계	101	10	111	3.6	6.3	32	4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는 투명한 내부 회계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동사의 지분구조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로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개인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 재무분석

### 플랫폼 기술을 통한 꾸준한 기술이전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 도모

동사는 다수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통해 최근 2개년간 500억 원 내외의 매출 외형을 유지하였고, 꾸준한 자금 유치를 통해 재무구조는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다만, 기술이전 부문 무실적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2021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였다.

#### ■ ADC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사업 전개

동사는 ADC와 합성의약품 연구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연구용역 등을 포함하는 신약연구개발 부문과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 상품들을 판매하는 의약사업부문으로 2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유형별 매출 구성은 신약연구개발 부문 62.9%, 의약사업부문 37.1%를 각각 차지하였고, 수출 59.9%, 내수 40.1% 비중을 나타냈다.

주력 사업부인 신약연구개발은 주로 동사가 보유한 신약후보물질 및 원천기술의 권리이전, 사용료 등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수술, 진료용 일회성 소모품이 20.5%, 임플란트 수술용 재료가 16.6%, 연구용역이 2.3%를 기록하였다. 각 사업 부문별 판매경로는 내수와 수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신약연구개발 부문의 경우, 기술이전, 연구용역 등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동사와 고객 간 직접 거래 형태이고, 특히, 해외 기술이전은 지역별 Agent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의약사업부문은 수도권 소재 5개의 의과 수술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치료재료와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여 사업을 전개 중이다.

#### ■ 최근 2개년간 500억 원 내외의 매출 외형 유지

동사는 의약사업부문 사업 다각화로 인해 2018년 252.4억 원(+9.6% YoY)의 매출액을 시현하였고, 2019년 Millenium Pharmaceuticals, Inc.(TAKEDA 자회사)와의 ADC 원천기술 계약[선급금 및 단기 마일스톤(중도금) 81.6억 원] 등 기술이전 신규 계약 선수금 및 연구개발단계 진척에 따른 중도금 수령 등 신약개발부문 기술이전 매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575억 원(+151.3%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후, 직전 연도의 기술이전을 통해 수령한 선급금이 주요 구성요소로 2020년 493.9억 원(-14.1%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실적 증가세는 일단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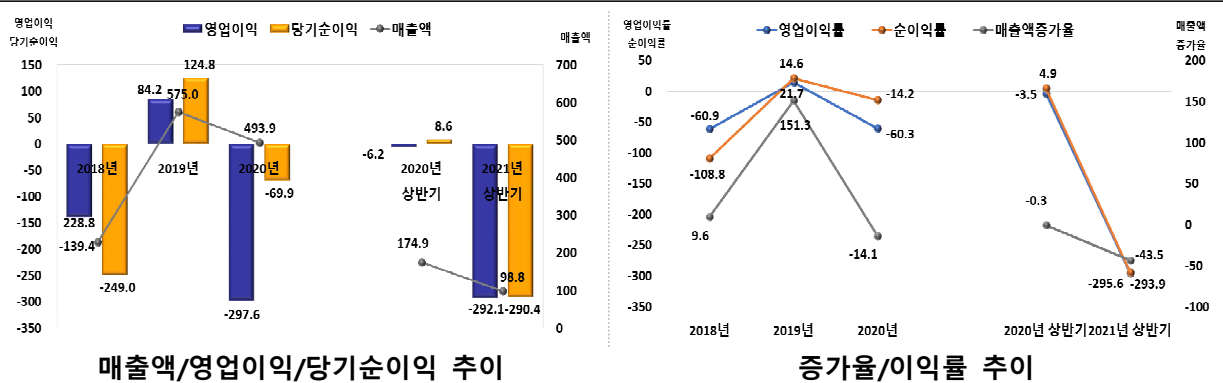
2021년 상반기 동안 98.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인 174.9억 원 대비 43.5%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술이전 부문에서 매출이 전무했던 것에 기인한다.

■ 신약연구개발부문 매출 확대로 2019년 첫 흑자달성 후 연구개발비 비중 확대

2018년 연구개발 단계로 본격적인 매출은 시현하지 못하고 있던 신약연구개발 부문의 비임상 및 임상 진행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139.4억 원을 기록하였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영업권 손상차손 114억 원의 일시적 계상에 따라 24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2019년 신약연구개발 부문의 매출실적 확대와 더불어 무형자산손상차손 소멸과 이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 84.2억 원, 당기순이익 124.8억 원을 기록하며 2006년 창사 이후 첫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2020년 297.6억 원의 영업손실, 69.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흑자기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ADC 후보물질 기술이전과 관련해 항체 파트너사에 지급한 기술료와 2020년 기술이전된 2건 및 독자개발 과제들을 위한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비 집행 등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2018년 11월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콜옵션을 2020년 12월 전 임직원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200억 원이 일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 다만, 이는 현금유출이 없는 비경상적인 회계처리 비용이며 동일금액이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금융수익에 계상돼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 계약별 특성에 따라 한 시점에 인식하거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동사의 주요 사업인 신약연구개발 특성에 따라 매출 인식은 더딘 가운데,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이 2021년 상반기 290.5% [2020년 113.6%, 2019년 30.6%]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여, 2021년 상반기에도 반기 영업손실 292.1억 원, 반기 순손실 290.4억 원을 기록하며 기말에 이어 전반적인 수익성은 적자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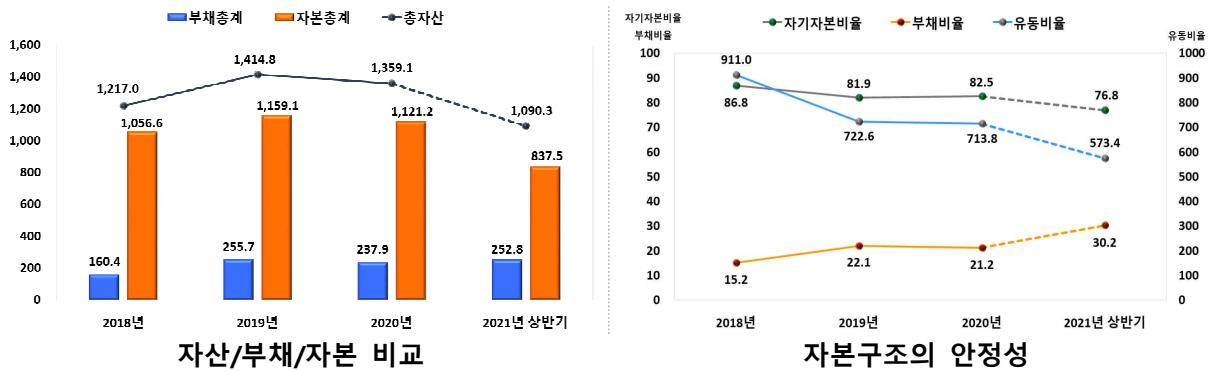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 지속적인 증자,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한 자본금 규모 확대

최근 3개년(2018~2020년) 동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9.5%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2020년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나, 전환권 행사 및 무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여전히 1,100억 원대의 자기자본을 나타내었다. 또한, 2020년 말 기준, 총자산 대비 40.2%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713.8%의 유동비율을 나타내는 등 단기적 유동성 대응력도 우수한 수준이다.

이후 2021년 상반기 대규모 순손실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2020년 기말 대비 25.3%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부채비율 30.2%, 자기자본비율 76.8%를 기록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의 변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는 2021년 7월, 1,6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재무구조 회복의 여지가 있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무성

### ■ 기타 이슈

동사는 2021년 7월 7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임상 및 연구개발 비용 등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 전환우선주 3,013,180주(발행금액: 약 1,600억 원)를 발행하였다. 이번 투자는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털(VC) 데일리파트너스를 포함해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퀴드자산운용, SG 프라이빗에쿼티 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표 4]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매출액	252.4	575.0	493.9	174.9	98.8
매출액증가율(%)	9.6	151.3	-14.1	-0.3	-43.5
영업이익	-139.4	84.2	-297.6	-6.2	-292.1
영업이익률(%)	-60.9	14.6	-60.3	-3.5	-295.6
순이익	-249.0	124.8	-69.9	8.6	-290.4
순이익률(%)	-108.8	21.7	-14.2	4.9	-293.9
부채총계	160.4	255.7	237.9	197.3	252.8
자본총계	1,056.6	1,159.1	1,121.3	1,161.3	837.5
총자산	1,217.0	1,414.8	1,359.1	1,358.6	1,090.3
유동비율(%)	911.0	722.6	713.8	1,142.9	573.4
부채비율(%)	15.2	22.1	21.2	17.0	30.2
자기자본비율(%)	86.8	81.9	82.5	85.5	76.8
영업현금흐름	-111.7	241.1	-148.9	-83.6	-220.6
투자현금흐름	-469.7	299.7	3.5	-104.4	-146.6
재무현금흐름	604.6	26.0	26.3	20.3	41.1
기말 현금	98.3	668.9	546.5	499.8	220.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대 및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증대 전략 확보

동사는 ADC 원천기술과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 ■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으로 매출 확대

동사는 ADC 링커 플랫폼 원천기술인 ConjuALL과 신약후보물질을 발굴 원천기술인 LegoChemistry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ADC 항체의약품과 합성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Vision 2030을 통해 글로벌 ADC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MOA 기반의 특신 개발 및 Bispecific 항체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면역치료제, 항생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말 임상개발을 담당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이 예상되는 만큼 2022년부터 자체 임상을 통한 도약이 예상된다.

동사는 2021년 10월 중국 안테진과 ADC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하여 안테진이 보유한 항체들과 동사의 ADC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ADC 후보물질들을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이고, 안테진이 후보물질 확정 후 글로벌 개발 및 사업화 옵션을 행사할 경우, 동사는 최대 총 4,265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중도금)과 별도의 로열티 그리고 제3자 대상 기술이전 시 수익배분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2021년 11월 유럽 SOTIO Biotech와 ADC 원천기술 기술이전을 통하여 1조 2,127억 원의 계약금과 별도 로열티를 확보하게 되었다. SOTIO Biotech는 동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5개 적응증을 타겟으로 하는 ADC 물질의 전세계 판매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동사는 선금금 및 단기 마일스톤 수령 후, 3단계의 개별 마일스톤 수령으로 계약금을 취득하게 된다.

##### ■ ADC 항체치료제 후보물질 LCB14 논문게재 및 World ADC Awards 2021 수상

2021년 10월 서울아산병원 최은경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사의 ADC 치료제 후보물질 LCB14에 대한 효능평가 및 작용기전 관련 결과 논문이 세계적 과학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게재되었다. LCB14는 비임상시험 결과, 암세포에 특이적이며 용량 의존적인 약효를 보였으며, 시판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 암 조직을 이식한 동물 모델에서도 뛰어난 암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동사의 LCB14는 현재 중국 파트너사인 복성제약을 통해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당사는 2021년 10월 진행된 ‘World ADC Awards 2021’ 에서 Best ADC Platform Technology부문 최고상인 Winner에 선정되었으며, 이로써 이 상을 4년 연속 수상한 유일한 회사가 되었다. 당사의 ADC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독신에도 붙일 수 있는 기술로써 암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하고, 다수의 기술이전을 통해 검증된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지속적인 기술이전 계약과 임상 성공이 향후 매출과 수익 확대의 관건

당사는 국내 신약개발업체들 가운데 해외 제약사들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의 건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당사는 안테진과의 계약을 포함하여 ADC 분야에서만 2021년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기술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기술이전도 기대하고 있고, 계약 규모도 약 2조 5천억 원 가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의 특성상, 초기 계약금 대비 임상시험 및 인허가 취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마일스톤이 전체 계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전 계약의 성사와 더불어 기술이전할 물질의 지속적인 임상 성공에 따라 지속적인 마일스톤 유입이 향후 매출 확대 및 수익구조 개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유안타 증권	Not Rated	-	2021. 0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복성제약에 기술이전한 HER2-MMAR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li> <li>■ Iksuda Therapeutics에 기술이전한 CD19-pPBD은 2021년 4분기, Pyxis Oncology 및 CStone Pharmaceuticals에 기술이전한 DLK1-MMAE, ROR1-pPBD 파이프라인은 2022년 1분기에 임상 IND 신청 예정</li> </ul>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추이)

[그림 13]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1월 17일)